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요한 14,2)

구 요비 (읍) 신부

유난히 비 피해가 많은 금년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한 늦가을, 온 산야는 붉고 노오란 단풍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마음껏 뽐내는 10 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참 제자 마을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피정의 집을 짓기 위한 기공의 첫 삽을 뜨려 합니다.

우리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임야를 살 무렵(2007 년)을 떠올려 봅니다. 서울 외곽의 어디 버려진 땅만이라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백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북향(北向)의 임야를 아주 싸게 매입하였습니다.

국내 제일의 조경가이신 정영선 선생님이 여러 번 우리의 보금자리를 둘러보시고 “병풍처럼 둘러싸인 뒷산이 성모 마리아의 치마폭처럼 포근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땅은 오른 손바닥을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오른 손가락”이라는 성령 송가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곳을 거닐 적마다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작년에 불란서의 브르타뉴(Bretagne) 지방의 1 천년 이상 된 유서 깊은 분도 수도원에서 피정하면서, 앞에는 대서양이 펼쳐지는 수도원의 장엄한 풍광에 매료되어 틔나는 대로 농장과 바닷가를 산책하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곡리 터전은 이런 웅장하고 고색창연한 유럽 수도원에 비길 수 없지만, 앞에 휘돌아 흐르는 홍천강과 기암절벽의 앞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이런 좋은 입지조건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째 화두(話頭)처럼 읊조리는 시편 말씀 126 편을 요즈음도 더욱 절실히 음미하곤 합니다. :

“주께서 집을 아니 지어주시면, 그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리다.

주께서 도성을 아니 지켜 주시면, 그 지키는 자들 파수가 헛되리다.”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건축 설계 도면과 씨름하며 자주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1 코린 3,10)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어떤 알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에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신뢰함에서 오는 희열과 평온이 아닐까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모곡리 우리의 보금자리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알 수 없는 힘, 이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피정의 집을 지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르심과 요구에 미력하나마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요한 14,2-3)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피정의 집은 우선적으로 회원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기도하고 피정하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신자들, 일반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려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쉬고 모임하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삶과 일터로 돌아가는 친교(koinonia)와 소통의 장소(community center)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를 따르라!”(마르 1,17; 요한 21,19)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철두철미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배우는 복음의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의 삶, 나의 하느님

- 나희균 크리스티나 (화가)

제가 철이 좀 들기 시작한 고등학교 2 년 때 미술 선생님 권유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공부라서 어두울 때까지 미술실에 남아서 석고데생을 열심히 하기는 했어도 선배 언니들의 숨씨에 감탄할 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춘기였는지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삶이 무의미하게만 여겨졌던 때라서, 그림 그리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일 년 남짓 지나고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해 6.25 가 나서 바라던 그림 공부를 거의 못하고, 1953 년 그것도 3 년 만에 졸업이라고 하고 나니 막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렵게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파리에 가 계셨던 안응열 선생님께서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 회원이 경영하는 기숙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곳엔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여학생과 프랑스 지방에서 온 여학생 80 여명과 다섯 분의 A.F.I 회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차로]라는 이름의 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A.F.I 회원 한 분이 저에게 샤르트르 성당까지의 도보 순례에 참가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 영세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괜찮으니 꼭 참가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자클린이라는 벨기에 분이었는데 그분과 프랑스 여학생 몇몇과 한국 여학생(소설가 고 김의정씨)도 같이 참가했습니다.

벌써 55년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아마 오후 일찍이 노트르담 성당 앞 광장에 집합했습니다. 약 천명 가량의 학생들과 신부님, 수녀님들이 모였고 곧 기차로 중간 지점까지 가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성모송을 노래하다가 침묵으로 걷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프랑스의 가톨릭신앙이 특히 젊은 층에서 침체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랜 전통의 나라의 저력을 보고 감탄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걷다가 어느 농가의 헛간의 짚단 위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다음날 다시 걷기 시작하여 오후에 멀리 밀밭 사이로 성당의 첨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땐 정말 반가웠습니다. 도착하니 오후가 되었는데 성당 안은 가득 메운 젊은이들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곧 미사가 시작되었고 여기저기에서 고백성사를 보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 책으로만 봤던 유명한 샤르트르 성당의 색 유리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롱하고 깊게 빛나는 색들이 오후의 햇빛으로 성당 안을 오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색유리들이 12, 13세기에 이름도 없는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심이 그대로 스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만이 위대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 넘은 신들린 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A.F.I 회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웃는 낯으로 학생들의 도움이 되어주고 항상 기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확실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귀국하기 한 달 전주를 A.F.I 회원에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배우면서 가톨릭 신앙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때 제 마음은 나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신자로서 잘 살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958년 부활미사 중에 유서 깊은 생 제르맹 데프레(St. Germain-des-Prés)라는 성당에서 영세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유학에서 받은 큰 선물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은 선물이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어떤 상본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야 43:1)

이 구절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모두 각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며 이름을 불러서 불러주시고 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 때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나 1959년 결혼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교리지식 없이 영세를 해서인지 차차 성당과 멀어지게 되어 거의 냉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책장에 꽂힌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도 입문』(로마노 가르디니)인데 어떤 분이 영세 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래서 더욱 쉽게 냉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책을 차근차근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내적 생활이 있어야만 신앙이 지탱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 중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의 본당 세종로 성당에는 박귀훈 신부님이 계셨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저를 아버지와 같이 보살펴주셨습니다.

같은 본당에 김홍섭 판사님이 계셨는데 늘 허름한 양복에 고무신을 신고 첫 미사에 오셔서 장말 골똘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렴하시기 비길 데 없으셨고 사형수들의 대부셨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50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작은 풀꽃부터 산들, 자연에 대한 사랑을 스케치북에 옮겨놓고 가톨릭 신앙에 귀의 할 때까지의 경위도 글로 남기셨습니다.

그 때 신학생이던 김정훈 부제와 그 아름다운 그림을 수필 사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무상을 넘어서』라는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맞게 김 부제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김 부제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유학하고 있을 때 산에 다니면서 파스텔 그림을 여러 장 남겼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는데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제는 맑은 영혼을 간직하였고, 산을 너무나 좋아하더니, 결국 산에서 실족하여 일찍 하느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운 인재를 잃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몇 권의 일기와 스케치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누님과 저는 일기를 읽어보고 숨김없이 써나간 글들을 젊은이들 특히 신학생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으로 엮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파스텔 그림을 끼워 넣었습니다.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란 책 이름은 김 부제가 어느 산 정상의 비망록에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김 부제가 떠난 지도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김 부제 30주기 추모 전시회를 가톨릭대학교 대건 화랑에서 가졌었는데 그때 구 요비 신부님을 처음 뵈고, 신부님을 통해서 슈브리에 신부님의 열렬한 예수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성경 말씀이 현실과 저와 연관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예수님을 가까이 알게 해주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일과 하느님 섬기는 일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도록 허락하신 뜻은 좀 더 예수살이를 열심히 하도록 하느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화인월드 김상우 베드로 대표님께서, 참제자 마을 피정의 집 건립을 위해, 사탕수수 100%로 만든 유기농 설탕인 **‘로브라운 마스코바도’**를 원가에 봉사해 주십니다.

이에 저희가 약간의 이윤을 붙여, 300g 한 봉지에 4,000원에 판매하오니, 표백제가 전혀 없고 영양소가 풍부한 최상급 유기농 설탕을, 회원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입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영양성분(100g당)	정제당(백설탕)	로브라운 마스코바도	순수 꿀
단백질(g)	0	0.2	0.2
탄수화물(g)	100	94	79.2
칼슘(mg)	6	82.2	35
인(mg)	0	484.1	14
철(ppm)	0.1	11.9	0.8
마그네슘(mg)	1	65.4	0
칼륨(mg)	2.5	446.5	0

(자료 출처 : Raw Brown Sugar Milling CO. Inc.)

별밭에서 만나다

-김 영 자 클라라 (시인)

만남은 예술이다. 마주침과 만남이 다른 것은 숨결 때문일 것이다. 만남 안에 살아있는 숨결, 그 숨결은 생명이기에 거룩한 초대이다.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올해 여름, 하느님께서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장으로 계시는 홍 교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초대는 참으로 풍요로운 선물이었다. 1 박 2 일의 짝 찬 여정, 그 순례 길에서 낮익은 얼굴과 낯 선 얼굴이 하나 되는 참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여름 선물이었다.

새벽잠을 털고 오후에 도착한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는 승보 사찰로 16 국사를 배출한 의미를 가득 안고 있었다. 정보박물관을 둘러보다가 시간을 내어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순천 낙안읍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평야에 축조된 읍성 안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는지 초가집 돌담, 싸리문을 지나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 마중 나오신 홍 교수님 부부와 함께 도화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 하는 동안 왜 그렇게 마음이 평온했을까? 소박하고 정갈한 그리고 겸손한 모습의 성당이 오랫동안 마음에 살아있을 것 같다.

우주체험센터에서 여장을 풀고 그 여름 밤 내내 행복했던 까닭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 축복하듯 빛나던 여름 별밭에서 은하수를 만나고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했던 아름다운 별들! 세상의 어느 보석이 그처럼 아름답고 눈부시던가. 나로도를 다녀 온 며칠 후, 9 월 1 일 첫 목요일 성시간이었다. 성체를 바라보며 묵상하던 중 나로도에서 관측했던 그 눈부신 별빛이 갑자기 떠올라 나를 사로잡았다. 성광 안에 모셔있던 성체가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그 후 성체를 모실 때마다 ‘거룩하신 당신의 몸이 제 가슴 안에서, 영혼 안에서, 제 삶 속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소서.’ 기도하곤 한다.

센터 강의실에서 주일미사 봉헌 하던 감회 또한 잊을 수 없다. 남쪽 끝 조용한 섬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먼 훗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사슴의 섬 소록도에 들어서니 한센인들을 위해 43 년 동안 사랑을 심고 조용히 떠나신 수녀님들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올라오는 길에 들렀던 강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초당과 김영랑 시인의 생가를 어찌 지나칠 수 있으랴!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는 다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이 빛나고 있지 않았던가. 김영랑 시인의 *오 메, 단풍뎌* 것네. 이 짧은 시귀에서도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가을이 되면 장광에 떨어진 골 붉은 감잎 한 장에서 여름 밤에 만났던 그 별들을 다시 만 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던 칼 세이건 박사는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코스모스를 정관(靜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깊은 울림, 이 번 순례의 여정에서 가슴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새 별이 탄생하는 기쁨을, 그 기쁨의 별밭에서 일구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성지(聖地)를 찾아 순례 길을 떠 날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만남을 위하여.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과 다산초당(茶山草堂)

-박광용 아우구스티노 해설

‘다산초당’은 강진 만덕산(萬德山) 중턱에 구강포가 내려다 보이는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정약용은 1801년 겨울 강진으로 유배를 와서, 1808년 봄~1818년 가을까지 이곳 다산초당에 머물렀다.

정약용이 여기서 자신의 호(號)를 ‘다산’이라고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곳 만덕산 초당(띠집) 주위에 차 나무가 많아서였다고 한다. 차는 1805년경 당시 백련사에 와 있던 대둔사 스님 혜장선사로부터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약용의 고향인 마재에는 차나무가 없었지만, 이곳 해남 만덕산에 특히 유명한 자생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를 배우고 혹애(酷愛)하게 되어서,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고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유학자들은, 자신을 공경하고, 가족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함께 사는 자연을 공경함으로써 도덕과 학문을 완성한다. 이는 “백성은 나와 한 핏줄이요, 만물은 나와 친구(民吾同胞 物吾與也)”라는 장횡거의 유명한 「서명(西銘)」의 글로 표현한다. 곧 정약용이 이곳에서 ‘다산’이라는 호를 쓴 것은, 유배지 강진과 다산=만덕산을 공경하여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의 학문이 드디어 ‘다산’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을 지닌다. 큰형 정약전(丁若銓)이 유배지 흑산도를 공경하여 『자산어보(茲山魚譜)』를 남긴 것도 같은 뜻이다. 그는 유배생활 시작부터, “비로소 독서할 여가를 얻었다”고 하면서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강역고(疆域考)』 같은 큰 저술 및 그 본 바탕이 되는 6경 4서 관련 연구서들을, 다산초당에서 일구어 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에 거처하게 된 것은, 모친이 공재 윤두서(尹斗緒)의 손녀였으므로, 해남 연동리 외가 쪽의 친척들이,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자, 이곳으로 정약용을 초빙하여 아들과 손자들의 교육을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정약용은 이곳에 온 후, 물을 끌어와 연못과 떨어지는 폭포[飛瀑]를 만들고, 석벽에 정석[丁石]이란 글씨를 새겼으며, 1,000여권의 장서를 마련하고, 3채의 띠집[茅屋]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다산의 제자이자 추사 김정희와도 친했던 초의선사(草衣禪師)가 그렸다는 「다산초당도(茶山草堂圖)」도 전해지는데, 다산이 생각했던 선비가 살아야 하는 이상향[福地]을 이곳에서 구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정민 교수님)

이를, 다산은 독실한 천주교도이기도 했다는 사실과, 다산의 중의법(重義法)에 의탁하는 글 쓰기 및 삶의 모습을 고려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면, ‘신앙인(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할 곳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성경에 의하면, 산은 ‘기도하며 하느님과 만나는 곳’이다. 베드로(반석)는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뵈고 나서, 3채의 초막을 지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 드리고 그곳에 눌러 앉아 함께 살고 싶어했다. 그렇다면, 다산이 이곳 초당 입구에 ‘정약용의 바윗돌[丁石]’을 새겨 놓은 이유, 그리고 1채 있었다는 띠집을 3채의 띠집으로 만들어 간 이유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이곳은 곧 ‘정약용의 영역’인데, 바로 정약용 ‘학문의 영역’이자 정약용 ‘신앙의 영역’이기도 했다…. 다산의 중요한 초기 천주교회 관련 기록들, 「권철신(鹿庵)묘지명」, 「정약전(先仲氏)묘지명」, 「이가환(貞軒)묘지명」, 『중용강의보(中庸講義補)』, 『조선복음전래사』 등은 대체로 이곳 다산초당에서 쓴 작품일 것으로 짐작된다는 사실들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도 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성지(聖地)’ 지정은 주교님 몫이지만, 교회 사적지 순례는 우리 같은 참제자들 몫이다.)

자기 비움을 통한 나눔과 친교로써 드러난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명성(평판)에 대한, 다산의 기록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형제든 제자든) 한 몸처럼 양육하며 …동포-형제로 대하고, …곡식이나 재물도 공동으로 써서 멋대로 구별하지 않고, …좋은 음식은 적은 양이라도 하천(노복)에까지 균등하게 나누어 먹었다. …그의 부모형제와 벗에 대한 독실한 실천은 비록 비방하고 배척하는 자라도 가려버릴 수 없을 것이다.” (권철신 묘지명)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사도행전 2,42-47)

<가장 큰 계명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연중 제30주일 복음 (마태오, 22,34-40)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니, 자신이 없어져서 근심 속에서 헤메다가, 다시 묵상해 보니, 나 자신은 이런저런 한계가 많아 제대로 못하지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내 이웃 안에도 하느님이 계시니, 하느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을 믿기보다는 그저 내려놓고, 하느님의 힘에 믿고 맡기고 받아들이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런 저런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봉사자들이 서로 자기 마음과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 서로의 편견과 한계들로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 힘만으로 하기보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임을 묵상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알고 있는 첫째 계명인데, 이를 '마음과 정신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심을 묵상해 보니, 목숨은 분명 나의 것이라기보다 하느님의 것이니, 그래서 이를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순교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음을 마음으로부터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마음과 정신'도 '목숨'과 마찬가지로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목숨을 다하라 하심은 '순교자'분들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었으니, 앞으로는 마음과 정신까지 잘 이해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몸 상태로 해서, 학교 일과 집안 일 모두가 계속 힘에 겨운데, 특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 사실상 말문을 막아버리신 고통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묵상과 독서 중심으로 살게 되니, 도리어 아름답고 충만한 시간을 즐기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말문이 막히는 고통으로 해서, 이전의 날카로웠던 자신의 언사들이 상당히 절제가 되는 것도 느껴지고, 특히 오늘은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누누히 당부하셨던 '자중자애'라는 말씀이 새삼 떠오르면서, 다시금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2 차 대수술 후에는, 반듯하게 누운 채로 아무 것도 못하면서 극심한 고통이 오는 상태를 겪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직접 몸으로 공명되어, 이제는 고통을 겪는 분들을 보면, 그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님을 제 몸으로 느끼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고통스런 체험으로 해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말들보다 직접 몸으로까지 공명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알게 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으로 사는 바리사이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사이들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그렇지 못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주님과 우리 교우들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바리사이들의 사랑과는 달리,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부-성자, 성자-제자들의 '서로 사랑'을 본받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달리 생각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사이들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구원을 서로 나누기 위한' 것이니, 특히 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나누지 못하게끔 막혀 버린 이웃들이 눈에 보여질 때, 내가 과연 그 이웃들과 함께 가면서 구원을 나누려고 했는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라자로와 마르타-마리아들에게서 보여지듯이, 그 분의 삶 속에서 구체성을 띠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른바 '이익사회'보다, 가족과 같은 구체성을 띤 이른바 '공동사회' 지향으로 생각되고, 보다 구체적인 사랑 속에서 그 실행이 더욱 넓어질 수 있음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꿈꾸시는 사랑, 곧 인격적인 나와 너의 확인 그리고 나의 '마음, 목숨, 정신을' 거는 사랑, 곧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현되어 간다고 복음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 참 제자 마을의 목표**

강원도 홍천 대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려는 참 제자 마을은,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성을, 슈브리에 신부님의 정신과 함께, 복음 말씀을 따라 살 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배우며, 친 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터.
- **쉼터 - 나눔의 집**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 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터
- **돌봄과 나눔의 영성적 녹지 공간**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이자, 순수 자연 속의 묵상의 터.
참제자 마을 농원에서 생산하게 될 농산물 등의 나눔과 축제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및 월 회비(*구좌 회원) 입금 계좌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031601-04-164956 국민은행 양업문화참제자마을
01168-641-001493 신용협동조합 양업문화교육원

<연락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E-Mail : kujop@catholic.ac.kr

*** 납입 및 입금 현황 2011. 10. 20. 현재**

납입인원 입금액

1,313 717,043,413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 제자 마을은,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된 올해 9월경부터 구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구좌당 월 10,000원)

*** 피정의 집(100평) 건립 실질 기금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1) 피정의 집 기념 벽에 봉헌자의 성함을 새겨, 기도로 영 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 봉헌자께서 개인 피정을 희망하 실 때, 피정의 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모곡 현지 참 제자 마을에서 나오는 양질의 암반수를 공급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같은 시간에 다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11년 5월 참제자 1일 피정**

2011년 5월 29일(일) 1일 피정이 경기도 장흥 ‘안상 철미술관’에서 열려, 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나희균 크리스티나 화백께서 진행 및 ‘나의 삶, 나의 하느님’ ‘나혜석의 생애’라는 피정 주제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 방선녀 가타리나 자매님 4주기 추도 미사**

6월 26일 11시 성북동 ‘프라도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 포항 성모자애원 장애우들과의 만남**

7월 16~17일 가평 성빈센트 환경생태마을에서 1박 2일간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성모자애원에서 16명, 참제자 모임에서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2011년 여름 나로도 청소년우주체험센터 방문 피정**

참제자 하계 피정이 08월 27(토)-28(일) 전남 고흥 나로도의 ‘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쏟아 지는 별빛 속에서, 홍승수 라파엘 교수님께서 안내와 주제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53명이 참석하여, 도화 성당, 송광사, 낙안읍성, 소록 도, 김영랑 생가, 다산초당을 순례했습니다. 첫날 아 침 6시 출발, 둘째날 밤 11시 넘어 도착이란 힘든 일정을, 주님과 함께 감사히 마쳤습니다.

***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관리동) 공사 시작**

성우건설(박보형 아우구스티노) 담당, 모도건축(이웅 락) 감리로, 10월 4일 참제자 마을 피정의 집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 2011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기공식 및 기념미사**

10월 30일 오전 11시 홍천 모곡리 건축 현장에서 열립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아름 다운 집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옥수수-고구마 축제는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취소 되었습니다.**

*** 2011년도 10월부터 새 업무 봉사를 맡으신 분들.**

- 피정의집 건축 감독관 : 석 용식 라우렌시오
- 참제자 소식지 편집인 : 박 광용 아우구스티노
- 휴대폰 문자알림 봉사 : 김 라미 바울라

*** 참제자 모임 회원님들 소식(경조사)**

- 12월 25일(2010년) 이윤석 마테오 형제님(김계순 가톨릭 자매님 부군) 선종
- 1월 31일 김영자 가타리나 자매님(이정민 비오 신 부님 모친) 선종.
- 2월 8일 한승연 펠릭스(김정심 글라라 자매님 자 제) 사제 서품

*** 성탄 축하미사 안내**

2011년 성탄 축하미사가 12월 24일 20시부터 프라 도의집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